

# “청주 불심 뚝뚝 뭉쳤어유~”

### 봉축법요식에 5천여 사부대중 참여 ‘화합’ 과시



5월 13일 열린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주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는 예년의 300~500명의 열배가 넘는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청주불교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단 간 사찰 간 불협화음으로 삐걱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불자들의 자긍심이 높아졌고, 불교를 바라보는 지역정서도 바뀌기 시작했다.

5월 13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청주불교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회였다. 이날 법회에는 5000여

명이 몰려 행사장이었던 무심천변을 가득 메웠다. 예년의 300~500명 수준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참가자들조차도 “청주 불교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다.

행사 자체에 대한 성공요인은 법요식을 종교적 의식에서 문화축제마당으로 바꾸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처음으로 시내 중심가에 연등을 설치하고 봉축탑 점등식도 봉

행하는 등 봉축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또 각 사찰마다 봉축장엄물을 만들어 나오도록 함으로써 신도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민들을 끌어들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한 번 해보자’는 청주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지와 이번 의지를 하나로 묶어낸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노력은 봉축행사 준비과정에 그대로 반영됐고, 결국 청주불교는 1년 만에 가장 모범적인 지역불교 성공사례로 꼽히게 됐다.

이번 행사 준비는 지난 2월부터 시작했다. 봉축위원회를 꾸리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종단과 사찰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찰 관계자들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머리를 맞댔다. 또 실행단계 재가자들이 실무국장을 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승가와 재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를 갖췄다. 봉축법요식에서의 봉축 범어도 불교연합회장이 해오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지역의 원로인 태고종 스님에게 배려하는 등 조계종 위주의 행사진행 틀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해관계를 초월해 화합하자’는 인식이 자리잡아갔다. 그 결과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찰이 청주시지역 100여 사찰 중 70곳에 이르게 됐다.

예년의 행사 참여 사찰 수가 조계종을 위주로 30여 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전태종 청주지부 명장사 전승규 신도회장은 “각의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연합회

## 종단 초월한 의견 수렴이 변화의 힘 문화축제로 지역민 참여 유도도 한몫

가 종단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청주불교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봉축행사를 기획 추진한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은 “현재 청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지지축제로 불교연합회 차원의 동맹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청주불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 “예능 나눔으로 무등등한 세상 구현”

### 광주전남 불자연예인 ‘무등 예술봉사단’ 창립



무등 예술봉사단원들이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말을 통해 “불국정토 구현에 재능 있는 이들의 손길을 보내고자 뜻을 모았다”며 “소외된 이웃을 찾아 무등등한 세상을 이루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도법사 무이 스님(덕림사 주지)은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쌓고 무의탁노인, 교도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공연과 연등축제, 산사음악회 등 불교계 공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무등예술단 향유일정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 이산진 광주전남신도회 회장을 무등예술단 명예 단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무등예술단은 일주(전통풍물패), 요텔클럽(요동송 클럽), 광주 재즈오케스트라, 굿마당(전통농악), 꼬두메 등의 음악단체를 비롯해 신현돈(불자가수회 부회장), 유상호, 주권기, 이은하, 오목대, 원재로 씨 등 연극, 연주가, 가수 등 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 부처님 찬탄소리 들리는가!

### 경남도 무형문화재 22호 ‘불모산영산재’ 정기공연

향토색 짙은 불교문화예술로 인정받아 경상남도로부터 2002년, 무형문화재 제 22호로 지정된 불모산영산재가 2005년 정기공연을 펼친다.

불모산영산재보존회(회장 석봉) 주관으로 5월 27일 마산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펼쳐지며, 불모산영산재 전 과정을 영상물로 제작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이번 공연은 현재 불모산영산재 보존회 회장이자 불모산영산재 범음범패 법고무 예능보유자인 석봉 스님이 집필 중인 ‘불모산영산재 총람’ 발간을 촉원하는 자리도 겸한다.

석봉 스님은 “통도사 범어사 중심의 아랫넷 소리 가운데 독특한 일파를 이루어 온 고성, 통영 지방의 범패 전통을 잇고 있는 불모산영산재는 전통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불모산영산재가 보존 전승돼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후세에 그칠 날이 없게 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055)246-779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제주도 불교유산 관광화 추진

제주도가 불교문화유산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청은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거리로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불교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 문화재 지정 및 전통사찰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통사찰 정비를 통해 제주 사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 해인사, 종합 홍보관 개관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영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호차원에서 5월 1일부터 장경각 탐방시간제한제도를 시행하고 5월 4일 해인사 종합 홍보관을 개관했다.

해인사와 가야산 팔만대장경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한 후 문화재 해설사 안내에 따라 체계적인 관람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해인사 홍보관은 구공루 1층에 영상실과, 인터넷검색대, 사진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다.

해인사 홍보관 설치의 장경각 탐방 시간제한 제도에도 맞물려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취해진 장경각 탐방 시간제한제도를 보완하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경각 탐방 시간제한제도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화요일 하루 장경각을 휴관하고, 장경각을 홍보관에서 영상으로 관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인사는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장경각 탐방을 제한하다가 2010년부터는 문화재 휴식년제를 도입, 10년을 주기로 1년씩 장경각을 휴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배지선 기자

## 양산불교문화특구사업 ‘삐걱’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를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계획 중인 양산불교문화특구사업이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국회의원과 양산시가 4월 통도사 설립전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된 이번 사업은 통도사가 자연경관훼손 등 난개발 위주의 특구지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지역 내 60여 교회모임인 기독교총연합회 측도 지역에 맞는 특구사업은 환영하지만 특정종교만을 위한 특구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양산시는 공청회 이후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판단,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양산불교문화관광특구사업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진주불교단체협의회 창립

진주의 불교단체들이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불교단체협의회를 창립했다.

진주불교사암연합회, 진주교도소 불자회, 진주 MBC 불자회 등 진주 지역 25개 단체는 지난 5월 1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진주불교사암연합회 해만 스님과 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은 허익구 진주산악대 교수, 김영석 진주시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진주불교단체협의회는 포교, 불교지도자 양성, 종교간 대화와 협력 증진, 불교문

화예술 증진, 사회복지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벌이게 된다.

한명우 기자

## 광주 덕림사, 명사초청 강좌



도심 속에 자리한 사찰에서 신도들의 교양강화와 포교를 위해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개설했다.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격월로 지역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로 하고 5월 10일 서부경찰서 양승규 서장을 초청해 첫 강의를 가졌다(사진).

이준엽 기자

## 개금복지관, 노인의료서비스

부산 개금복지관(관장 박용하)은 5월 19일 부산 개금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상담을 펼치는 사랑의 의료봉사단 순회 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개금복지관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오묘호 어르신 100명에게 의료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5월 25일에는 필질방 일일체험에 지역 어르신 10명을 초청하는 행사도 가졌다.

천미희 기자

## 열린가람, 어르신 합동결혼식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남승)은 5월 19일 포항 확산종합복지관에서 노인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었다(사진).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주례로 열린 이날 결혼식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살아온 6, 70대 노인부부 4쌍이 지역 노인 1천여 명의 축하 속에 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이어 오후에는 축하연이 펼쳐져 훈훈함을 더했다.

배지선 기자

## 광주 무각사, 남미 산사음악회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7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천왕문 앞에 꾸며진 특설무대에는 남미 민속음악 공연단 ‘시사코리아’가 출연해 ‘속삭임’, ‘울면서 떠나네’ 등의 남미음악을 소개했다.

음악회에 앞서 주지 광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에서 울리는 인카, 자연의 소리를 통해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 벌초작업, 사찰, 정원

## 새로운 파워 업그레이드 (무소음 벌초기)

# 강력한 파워 - 21세기 예초기

### 사찰주변 · 벌초 · 정원 · 공장주변 조경및 제초작업 해결

**깨끗하게! 안전하게! 간편하게! 신속한작업**

## 초강력 밧데리로 장시간작업가능

### 21세기 예초기의 특징

- 강력한 파워 : 모터 장착 (약 7000RPM) 풀뿔만 아니라 잡목(직경3cm)도 쉽게 제거
- 충분한 작업 시간 : 고성능 강력한 파워밧데리로 1회 충전으로 장시간(3~4시간) 작업가능
- 안전한 작업 : 안전망 부착, 돌이튀는 것 방지
- 만족한 효과 : 안전망 감으로 부착 첨단 다중 면도날 원리로 깨끗하게 마무리
- 저렴한 유지 비용 : 충전식으로 연료비가 들지 않음
- 간편한 휴대와 이동 : 조립식으로 배낭에 넣어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이 쉬움
- 작업 방법 : 10미터 선으로 예초기 본체와 밧데리 연결해서 작업

■ 작업대상 : 사찰주변, 벌초, 정원, 공원, 잔디관리, 학교, 공장 주변 잡초관리, 산 관리

제조원 : 국산 에스아이테크 예초기사업부

**주문 및 상담전화 (031) 342-9696**  
\*전화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택배로 배달합니다

▶ 농협 : 110-12-470206 (예금주 : 김 양 금)

### 대리점 조건

- ◆ 초도물량 500만원으로 창업가능
- ◆ 무점포 가능 차량소유하신분 우대
- ◆ 대리점지역 전남 충판, 전북 충판, 충청도 충판, 경상도 충판, 강원도 충판

- 사찰주변조경,잡초제거!
- 벌초, 잔디 깎기에도 최고!
- 산 잡목관리 및 정원조경!
- 학교 화단 조경작업 최고!
- 공장 주변 잡초제거에도 최고!